

東洋医学 科 獸医針医学(3)

徐斗錫*

3. 五行學說

1) 五行學說의 基本概念

五行學說은 中国古代의 哲學의 思想에서 發祥되어 長久한 年代를 經過하는 過程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經驗的으로 應用하는 가운데서 成立된 學問으로서 宇宙 太初에 太極으로 構成되었고 太極에서 陰과 陽의 두가지의 儀로 갈라져서 天地가 形成되었으므로 이 天地의 陰과 陽의 氣가 萬物을 生成하였는데 이 生成된 萬物을 構成한 元素가 木, 火, 土, 金, 水의 五行이므로 陰과 陽은 物質化되기 이전의 “氣”이고 五行은 이미 形態化한 實體(物質)이기 때문에 모든 物質은 五行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學說이다.

五行學說을 東洋醫學의 으로 응용한지는 약 千 年이 經過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長久한 세월에 걸쳐서 얻어진 經驗을 總括한 實踐醫學으로서 東洋醫學에 있어서 主軸을 이루고 있다.

古代中國人들은 木, 火, 土, 金, 水의 五行이 宇宙를 구성한 基本物質이라고 생각하고 宇宙間의 모든 事物은 이 다섯가지 物質의 運行과 變化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認識하였다고 한다. 이 物質들은 각각 일정한 특성이 있고 宇宙間에 있는 多種多樣한 모든 事物은 그 性質과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가지의 基本物質에 의해서 구성되는 는데 이것들은 전반적인 事物間의 關係를 證

明하고 있다고 한다.

東洋醫學은 五行學說에 의해서 證明되고 사람이나 動物體의 內部와 外界環境間과의 相互關係를 重視하고 이것을 基本으로하여 實踐醫學을 指導하였다. 따라서 方向(東, 南, 中, 西, 北), 季節(春, 夏, 辰, 夏, 秋, 冬), 五氣(風, 暑, 濕, 燥, 寒) 등의 自然界의 要素와 人畜體內의 五臟六腑를 結付시키고 이들의 特性에 의한 五行歸屬-覽表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다음의 表에서 木行을 例들어 간단하게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肝은 즐거우며 즐거움이 上昇하면 生氣가 있으므로 肝과 東方은 萬物의 生長을 나타내기 때문에 春에 해당하고 春節에는 微風이 있으며 靑色을 나타내는 季節의인 自然現象과 關連이 깊다. 즉 木이라고 하는 것은 東이며 東은 春인데 春에는 風이 있고 生物이 소생하는 季節이므로 肝과 胆囊에 속하며 五感器中에서는 目에 해당하고 五體中에서는 筋과 關連되며 五色中에서는 靑에 속하고 五味中에서는 酸이 이에 속하며 五液中에서는 泣에 속하고 五志中에서는 怒, 五香中에서는 臊, 五精中에서는 魂이 각각 속한다. 肝은 五臟中의 하나이고 天然孔(口, 耳, 目, 肛門) 등에 開口하였으므로 體(筋肉) 속(中)의 木行이다. 以下 火, 土, 金, 水도 木行을 說明한 방법과 同一하게 推察하면 理解할 수 있으리라고 思料된다.

木火土金水의 각 行列의 性質中에 두 종류의 法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相生과 相剋의 關係

*全南大學校 農科大學 獸醫學科

五行歸屬一覽表

五行	木	火	土	金	水	備考
方位	東	南	中	西	北	五方位라고도 함
五季	春	夏	辰夏	秋	冬	季節이라고도 함
五氣	風	暑	濕	寒	燥	氣候라고도 함
生化過程	生	辰	化	収	臟	
五臟	肝,胆	心,心筋	脾,胃	肺,大筋	腎,膀胱	脾를 脾라고하는 사람도 있음.
五勞	久步	久視	久坐	久伏	久立	
五支	瓜	主	乳	息	肢	
五液	泣	汗	涎	涕	唾	
五感	目	舌	口	鼻	耳	
五體	筋	脈	肉	皮毛	骨	五主라고도 함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味	酸	苦	甘	辛	鹹	
五志	怒	笑	思	慮	恐	
五候	色	聲	味	臭	液	
五聲	呼	言	歌	哭	呻	
五香	臊	焦	香	腥	腐	
五音	角	徵	宮	商	羽	
五精	魂(神)	意	智	魄	精志	
五常	仁	禮	信	義	智	
五魂	辛魂	荒魂	直靈	和魂	寄魂	

이다. 五行學說에서 主要한 것은 相生(相互間에 生한다는 것)과 相剋(相互間에 抑制한다는 것)을 基本으로 說明하고 그 事物間의 相互關係를 表現한 것이다. 즉 모든 事物의 運動과 變化, 相互滋生, 相互制約 등의 關係를 相生과 相剋關係를 基本的인 理論으로 說明한 學問이다.

(1) 相生

相生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事物이 相互滋生과 相互助長의 關係를 保有하는 것을 말한다. 즉 木은 火를 낳(生)고 火는 土를 낳(生)으며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으며 水는 木을 낳는다는 理論이므로 母子關係와 같이 相剋이 없이 항상 相助하는 것으로서 相互間에 낳(生)고 相互間에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이 理論을 考察하면 모든 事物은 모두 和를 낳는(生)것과 和가

낳는(生)것의 두가지가 있다는 說明이다. 木을 例들면 水는 木을 낳고 木은 火를 낳는다는 理論이다. 古代中國人들은 母子關係를 말할때 水는 木의 母이고 火는 木의 子라고 說明하였다. 火,土,金,水의 四個行은 木을 解釋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推察하면 理解할 수 있을 것이므로 說明을 略한다.

(2) 相剋

相剋은 相生과 反對의 現象으로서 剋이라고 하는 것은 瀉하는 것을 뜻하므로 相互間의 制約關係를 말한다.

金은 木을 剋하고 木은 土를 剋하며 水는 火를 剋하고 火는 金을 剋한다는 理論이므로 均衡狀態가 상실한 不和를 말한다. 故로 調和를 이루지 못한 것을 찾아서 過不及이 없이 均衡狀態

로 環元시키기 위하여 針治療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理論이 經絡治療의 基本的인 理論이다. 따라서 要略하면 모든 事物은 和가 廻하고 和를 廻하는 두종류의 관계가 成立된다. 木行을 예들어 설명하면 木의 和를 廻하는 것은 金이고, 和가 廻하는 것은 土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推察하면 火, 土, 金, 水의 四個行을 理解할 수 있으므로 說明을 略한다.

五行學說의 相生과 相廻는 陰陽學說에서 陰과 陽을 分離할 수 없는 것과 같이 五行學說에서 分離할 수 없는 相互關係라고 한다. 어떤 物質이 生(生)지 않으면 事物이 發展과 成長을 할 수 없고 廻服하지 않으면 正常的으로 維持하고 協助의 關係下에서 變化和 발전을 할 수 없다는 理論이다. 즉 相生中(속)에는 相廻의 관계가 있고 相廻中(속)에는 相生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가지의 正常的인 生理現象은 두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이와 相反해서 相成關係가 있는데 東洋醫學에서는 이것을 制化라고 한다. 生의 中(속)에는 반드시 制가 있고, 制의 中(속)에는 生이 있다는 理論이다. 만약에 五行中(속)에 相生만 존재하고 相廻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약한것은 다시 약해져서 臟腑(五臟六腑)가 파괴되어 臟腑間의 正常的인 平衡狀態가 상실된다는 理論이다.

制化關係는 木이 土를 廻하고 土가 金을 生(生)며 金이 木을 廻하고 火가 金을 廻하며 金이 水를 生(生), 水가 火를 廻하며 土가 水를 廻하고 水가 木을 生(生)며 木이 土를 廻하고 木이 火를 生(生), 火가 金을 廻하며 水가 火 金이 木을 廻하며 木이 火를 生(生), 火가 金을 廻하며 水가 火를 廻하고 火가 土를 生(生)며, 土가 水를 廻한다는 理論이다. 따라서 이五行은 모든 事物은 我가 生하며 我를 廻하고 我가 廻하는 四종류의 相互關係가 存在한다고 하며 이 관계는 각 장기간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에 의한 것이고 相互制約의 正常的인 관계는 動物體의 正常的인 生理活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라고 한다. 만일에 相生과 相廻中에서 어느 한가지의 관계라도 상실하면 平

衡이 상실하여 어떠한 偏差가 생겼을 때에 疾病이 발생하고 相互의 影響에 의해서 病証이 惡化되는데 이것을 相乘이라고 한다. 乘이라고 하는 것은 虛라는 뜻으로서 五行中에서 어떠한 一行의 本身이 虛弱하였을 때는 다른 行에 乘이 虛를 侵蝕하기 때문에 代置된 行은 不足해진다. 예를 들면 元來는 木이 土를 廻한다. 그러나 土(肝)의 本身이 虛弱할 때는 木이 土의 虛에 의하여 廻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廻은 正常的인 制約關係를 초월하므로 土를 다시 虛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肝水乘脾라고 하여 肝臟의 木은 脾臟에 乘한다고 한다. 相廻는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生理現象이나 이것이 相乘인 때는 反對關係 즉 疾病이 발생한다.

相侮라는 것은 強弱이라는 뜻이다. 즉 五行中에서 어떠한 一行의 本身이 亢進할 때는 元來의 一行이 그것을 制約할 수 없기 때문에 廻으로 된다. 예를 들면 土는 火를 廻하는 것인데 火의 氣가 過하여 土가 火를 廻服하지 못할 때는 逆으로 金이 廻服되므로 土가 損害를 보기 때문에 서로 侮禱하고 侮禱당한 다는 뜻에서 相侮 또는 反侮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反廻이다. 그러므로 五行學說은 正常的인 生廻制화와 相乘 및 相侮이 두가지가 主要한 論點이라고 思料된다.

2. 五行學說의 東洋獸醫學의 應用

東洋獸醫學理論中에 動物體內的 內臟, 組織, 器官 및 藥物의 性狀과 맛(味) 등의 分別은 五行에 속하는 것 이외에도 五行의 生廻과 乘侮도 五臟間에 있어서의 生理와 病理狀況을 相互關係의 理論으로 說明할 수 있으며 臨床的인 醫療施術을 적용할 수 있다. 즉 生廻과 乘侮를 파악함으로써 治療할 수 있다는 說明으로서 예를 들면 五味라고 하는 것은 酸, 苦, 甘, 辛, 鹹을 말하는데 心臟病에는 쓴맛(苦味)이 있는 藥材를 主劑로 處方하고 肝疾病에는 신맛(酸味)이 있는 藥材를 主劑로 處方한다고 한다.

(1) 五行의 特性에 따르는 臟腑의 生理機能

東洋醫學에 있어서의 五行學說은 動物體의 內

臟을 五行으로 分類함과 동시에 五行의 특성은 五臟의 生理活動(生理作用)의 특성을 기준해서 解釋한다. 즉 肝臟은 木에 속하며 木은 生(生)이 출발하는 특성이므로 肝喜條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生命이 出發한다는 뜻이다.

心臟은 火에 속한다. 火는 陽熱이 특성이며 心臟은 溫熱의 作用을 한다고 하며, 脾臟은 土에 속하고 土는 萬物이 化生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生化의 源泉이라고 해서 脾生生化之源이라고 한다. 肺는 金에 속하는데 金은 清肅하고 收斂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肺主肅降이라고 한다. 腎臟은 水에 속하고 水는 溫한 특성이 있으며 주로 水라고 해서 腎主水라고 하는데 腎臟은 陰이며 全身機能의 滋養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古代의 東洋獸醫學에서는 모든 五行은 基根의 五臟機能의 代名詞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認定되어 왔다.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五行의 특성을 記述할 때 五臟의 特性을 記述하지 않으면 一方으로 偏重된 說明이 되기 때문에 不完全해서 認識하기 어려우므로 要略해서 說明한다.

肝의 生理的機能은 肝喜條達 이외에도 肝은 陰이며 肝血은 滋養作用을 하나 木의 特性에 속하는 모든 것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다. 心臟의 生理的機能은 單純하게 心은 陽이고 溫熱이 흥분작용하며 心의 陰은 心血의 滋養이며 沈靜作用을 하나 火의 特性에 속하는 모든 것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다. 脾胃의 生理的機能은 生化의 작용을 하고 脾의 氣는 主로 昇이며 胃의 氣는 主로 降이므로 昇發과 通降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土의 特성과 맞는 (合)다고 할수없다. 肺의 生理的機能은 清肅의 作用뿐만 아니라 흩어지게(發散)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單純하게 金의 特성에 속하는 모든 특성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腎의 生理機能은 腎陰의 滋養作用과 腎陽의 活力을 命門之火라고 하는 것이므로 腎은 生命活動의 根本的인 力量이며 動物體의 生長發育의 動力으로서 臟腑의 陽과 氣의 根源이기 때문에 單純하게 水의 特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結論으로 말한다면 臟腑의 生理規律은 臨床의인 實踐과 科學의인 實驗을 쌓아 가는 過程에서 파악할 수 있다. 五行學說의 特性만을 強調하면 主觀과 客觀이 離되어 唯心論的인 單순한 經驗論으로 빠져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2) 五行學說의 生剋과 乘侮에 있어서의 臟腑間의 關係와 疾病의 變化

五行學說의 生剋規律에 관하여 生理學的인 面을 中心해서 臟腑間의 相互關係를 說明하면 生剋連系의 根擔는 各行마다 모두 我를 生하고 我가 生하며 我를 剋하고 我가 剋하는 네가지의 主軸을 이루고 있다. 이 네가지의 連系는 五行에 五臟을 配列한 다음에 네가지의 方面에서 하나의 臟을 固定하고 其他 네개의 臟과의 連系를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肝臟을 例로 들면 我를 生하는 그 自体는 腎臟이고 我가 生하는 것은 心臟이며 我를 剋하는 것은 肺이고 我가 剋하는 것은 脾라고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動物體의 五臟의 相互關係를 說明하여 오늘까지 傳承되어 왔다.

病理的인 狀況下에 있어서의 東洋醫學 亦是 生剋과 乘侮에 의하여 臟腑間의 상호영향과 疾病의 變化를 說明하였다.

예를 들면 肝의 疾病은 항상 脾로 부터 轉向되어서 發病한다고 한다. 그것은 木이 土를 剋하거나 木이 土에 乘하므로 治療할 때 注意해야 할것은 脾를 補해야 한다는 것이다. 肝의 火는 肺를 침범한다고 한다. 木과 火는 金을 制約함으로 肝의 木이 亢進하기 때문에 心臟의 火를 生(生)고 心臟의 火가 金인 肺를 剋한다고 한다. 脾의 疾病은 肝에 移行하기 때문에 母의 病이 子에 波及한다는 것이고 腎으로 옮겨가면 子의 病이 母에 波及한다는 理論이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動物體의 五臟은 相互關係가 複雜함으로 五行中에서 어느 것인가의 相生과 相剋의 循環關係를 應用해야하나 機械的

으로 단순하게 推理해서 解釈한다면 五臟과 臟腑와의 密接한 關係의 眞實한 實態를 診斷할 수 없다는 點이다. 疾病의 발생과 轉移에 대한 설명은 單純하나 복잡하기도 하다.

이들의 變化와 患畜의 體質 및 飼養管理 등과도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疾病

에 걸렸을 때는 五臟의 各臟間과 六腑의 各腑間은 相互間에 影響을 받게 되나 病理學的인 變化는 一般적으로 規律性이 있는데 이 規律性은 반드시 五行學說의 生·剋 이나 乘侮 와 같이 順序的으로 轉移하는 것은 아니다.

＝ 다음호 (五行學說 및 獸醫針醫學) ＝

● 新刊案内

돼지 질병학

이론과 실제

李 鉉 凡 著

4 × 6 倍版 217페이지

定價 7,000원

송료 830원